

군사 분쟁 및 통합 간 안정화에 관한 연구

: 클라우제비츠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김법헌(조선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논문요약

현대에 들어와서 국가 간 군사적 분쟁 이후의 최종 안정 및 평화 상태에 도달하기 까지 안정화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안정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마찰을 해소하고 균형을 유지해야하는 중요한 과업이다. 하지만 국내 일부에서는 안정화를 단지 군사분쟁에서의 군사작전적 수준이라는 협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고,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여 더 나은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평시, 또는 전시 제 분야의 노력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안정화의 개념을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되 군사분쟁 수준뿐만 아니라 평화 시로 더 확장하여 군사통합 간 정치경제사회군사의 전 영역 측면에서 넓게 해석하여 재정립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안정화 과정에서 '정부-군대-국민의 마찰과 균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라크전과 독일의 군사통합사례에 적용하여 비교분석과 함께 함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향후 한반도에 안정화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주안을 두고 연구하였다.

그 결과, 안정화는 군사분쟁 및 군사통합 간, 특히 평화 시에도 제 영역에서 모두 적용이 가능하며, 추진 간 마찰을 최소화시키고 균형 유지가 안정화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안정화, 군사분쟁, 군사통합, 마찰과 균형, 안정화 성공요인

I. 서론

한반도에서의 남북한 분단은 70여 년간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분단을 종식시켜야 할 통일 및 통합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이르는 방법은 군사적 분쟁과 평화적 접근에 의해 가능하지만, 안정화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최종목표는 보다 나은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달성하는데 있다.

우선, 전쟁은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한 이래 끊임없이 발생되어 왔고, 엄청난 살상과 파괴를 수반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은 군사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군사력을 크게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쟁은 궁극적으로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살상과 파괴에 주안을 둔 물리적 수단과 방법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그에 못지않게 전쟁 간 또는 전후 안정화의 중요성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표적 사례가 이라크전이다.¹⁾

한편, 군사분쟁 또는 평화 시 국가 간 군사통합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물리적·비물리적 갈등과 마찰은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불안정과 안정이 결정되게 된다. 분단국에서 통합을 달성한 베트남, 예멘, 독일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에서 남북한은 장기간 이념적 및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한 안정화와 평화적 방법에 의한 안정화가 모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비하여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다행히도 최근 국내에서도 군사적 수준의 안정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안정화를 지나치게 군사분쟁의 군사작전적 수준 위주로 협소하게 해석, 적용하고 있어서 본질적 안정과 평화 노력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에 착안하여 분쟁 및 통합 시에도 안정화의 중요성을 인식

1)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FM 3-07 *Stability Operation*, 2008, pp. vi~vii.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찾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면서 우선적으로 안정화의 개념을 본질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군사분쟁 수준뿐만 아니라 평화 시로 더 확장하여 군사통합 간 정치·경제·사회·군사의 전 영역 측면에서 넓게 해석하여 재정립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이라크전쟁 및 독일통일 간 군사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안정화를 고찰하면서, 안정화 간 마찰과 균형논리가 어떻게 작용하였고, 이에 따른 함의는 무엇이며,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대비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II. 안정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안정, 또는 안정화(安定化, stability)의 기본적 의미는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해 감”으로 정의되고 있다.²⁾ 또한 최종적으로는 보다 나은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안정’이 결과적 상태라면, ‘안정화’는 이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이에 따른 용어는 정치 및 경제, 사회 및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분야에 따라 의미를 달리 해석, 적용하고 있지만 그 본질적 의미는 큰 차이가 없다.

1. 군사분쟁 간 안정화

우선, 안정화는 미국에서 국제정치적으로 강조되면서 주도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미국은 국가의 안보, 이익, 또는 가치를 위협하는 분쟁에 있어서 평화와 안정의 복구를 위해 신속하고,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특히 취약(실패한, 실패하고 있는, 회복 중) 국가를 대상으로 ‘재건 및 안정’이라는 정책 하에 경제·군사적 지원을 수행해 왔다. 그러면서 안정화(stabilization)는 성공적·장기적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차후 폭력 및 법과 질서의 붕

2) 국어사전, <http://dic.daum.net/search.do?>(검색일: 2017. 8. 13).

괴로 이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긴장을 관리하고 감소시키는 과정이라 정의하고 있다.³⁾

이에 연장선에서 군사분쟁 간 ‘안정화’는 최근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서 미군이 크게 발전시킨 개념이다.⁴⁾ 미군은 양개 전쟁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활용하여 주요전투에서 승리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전쟁을 종결하는 데는 많은 인적, 물적 피해와 장기간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이를 통해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닌 전쟁에서의 최종 승리를 위해서는 성공적인 안정화 작전이 필수적 과업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미 정부는 2005년 대통령훈령 제44호 “재건 및 안정화를 위한 유관기관 노력의 관리”라는 지침을 하달하였고, 이에 따라 이라크에서의 군사력에 의한 결정적 작전 이후 전반적 전후관리를 미 국무성에서 총괄하여 조정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어서 미군은 2006년 이후에 『민간지원작전』 및 『안정화작전』 교리를 발전시켜 적용해 나갔다. 즉 미 정부의 재건 및 안정화 노력의 큰 맥락 속에서 군의 안정화작전이 이루어졌던 셈이다. 그리하여 안정화작전이 기존의 공격, 방어와 동등한 수준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⁵⁾

이에 따른 미 국방부에서 정의한 안정화작전은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을 유지 혹은 복구하고 필수 공공서비스, 긴급 기반시설 재건,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력의 기타 요소들과의 협조 하에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군사작전, 과업, 활동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 이와 같은 개념에 따라 미군은 2003년 이라크 주요전투 종결 후에도 2010년까지 이라크의 재건 및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안정화과업을 설정, 안정화작전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한편, 한국군은 미군의 개념을 수용하여 안정화작전을 발전시켰는데 “자유

3)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앞의 책, pp. 1-1~1-18.

4) 안정화 논리는 과거에도 존재하였지만, 최근에 현대전에 맞는 개념과 용어로 발전되어 부각되고 있다.

5) 이라크 평화재건사단 보고서, 『이라크전쟁을 통해 본 향후 한반도 민군작전수행방안』, 서울: 합참, 2006, 참고.

6) 육군대학, JP 3-0 『안정화작전(Stability Operation)』, 대전: 육군대학, 2009, p. vii.

화지역에서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고 통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군이 정부 및 민간 분야와 협력하여 인도적 지원과 기반시설 복구, 민간의 안전 및 통제체계를 구축하는 제반 군사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⁷⁾ 여기서 자유화지역은 수복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군사분쟁의 군사적 후속조치 수준 정도로 협소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군사분쟁에서의 안정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차원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고 있고, 불안정한 상황을 안정된 상황으로 가기 위한 제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정화는 앞의 기본적 의미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경제·사회·군사에서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군사분쟁에 군사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분쟁과 평화 시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도 국가 제 영역과 수단에서의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2. 군사통합 간 안정화

군사통합은 각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국가 간 통일의 일부분이며, 군의 조직과 기능 및 군사제도를 통합하여 일원화시킨다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 군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제를 일원화시켜 군대를 합치는데 중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군사통합은 “통일을 위하여 각기 서로 다른 군사적 사상 위에 수립된 조직과 제도를 통일국가의 이념과 목표와 동일하게 외형적으로 단일화하는 것은 기본사항이며, 구성원들의 내적인 상태까지 일체감을 갖고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 또는 상태”라 정의되고 있다.⁸⁾

그리고 군사통합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강제 흡수통합, 합의적 흡수통합, 합의적 대등통합으로 구분되고 있다. 첫 번째로, 강제적 흡수통합은 국가 간에 상호합의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국가 군에 의해 강제적으로 진행되어

7) 합동참모본부, 『합동안정화작전』, 2016, p. 12.

8) 김법현, “분단군 군사통합과정에서의 이념갈등 극복: 독일 사례분석과 한반도 적용방향.” 『한국 군사학 논집』 제73집 제1권, 2017, p. 12.

진다. 이는 전쟁 패배 또는 급변사태 발생 시 단기간 시행하는 경우에 통합이 이루어지고, 게릴라 등 무력 저항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특징이 있다. 베트남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두 번째로, 합의적 흡수통합은 어느 일국 주도의 합의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는 주도국 군체중심의 군사통합이 이루어지며, 독일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세 번째로, 합의적 대등통합은 양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는 상호 합의된 체제로선 통일 후 시행이 가능하며 장기간 시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예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⁹⁾ 즉 군사통합은 군사분쟁 및 평화 시에 각각 적용되고 있다. 군사분쟁 시에는 주로 강제통합을, 평화 시에는 주로 합의통합을 추진하게 된다. 군사통합은 두 개의 군대가 통합과정에서 마찰에 의한 갈등은 필연적이다. 통일독일은 먼저 정치적 통일을 달성하고, 이후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부문에서 나타나는 마찰의 갈등적 요소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었다. 여기서 하나의 완전한 통합은 물리적 요소의 외적통합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소까지를 포함한 내적통합까지를 이룬 상태를 뜻하고 있다.¹⁰⁾

따라서 이에 대한 극복과정에서 안정화는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박종철은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방안”을, 이만중은 “분단국의 통일과 군사통합에 대한 소고,” 박균열은 “통일 한국군의 문화통합과 가치교육”에 관한 논문에서 내적통합을 중요시하고 이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¹¹⁾

이를 종합해보면 군사통합도 군사분쟁, 또는 평화 시 양국 간 완전한 통합을 달성하는 데는 많은 마찰과 갈등이 수반된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최종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안정화 과정으로 해석하고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9) 권양주, “남북한 합의 통일 시 군사통합 적정시기 및 절차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2008, p. 123.

10) 양현모, 『독일 통합의 경험이 남·북한 체제 통합에 주는 교훈』, 서울:한국행정연구원, 1998, p. 8.

11) 박종철 등 7명,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3; 이만중, “분단국의 통일과 군사통합에 대한 소고,” 『국방논집』 제30호, 1995; 박균열, 『통일 한국군의 문화통합과 가치교육』,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1, 참조.

3.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론: 정부 - 군대 - 국민의 마찰과 균형

1975년 월남전에서 패배한 미국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군대를 육성, 현대에 와서는 세계 최 강군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이르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지만, 미(美) 서머즈 대령(Harry G. Summers)이 저술한 『미국의 월남전 전략(On Strategy: The Vietnam War in Context)』도 그 중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¹²⁾

서머즈는 월남전에서 패배한 이유를 19세기 프리시아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가 쓴 『전쟁론(ON War)』의 고전적인 전쟁원칙을 기초로 예리하게 비교분석하였고, 이는 미국군의 전투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더구나 이라크전에서의 군사적 승리를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클라우제비츠의 주장은 무엇인가? 전쟁론에서의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다.”라는 것과 “전쟁은 정부-군대-국민이라는 묘한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고, 그들의 상호관계는 언제나 일정하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일정하지 않은 이유를 각 요소 간에 ‘마찰’이 작용한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마찰과 균형의 주장은 나폴레옹전쟁 시대의 관점에서 본 전쟁 본질에 관한 고전적인 주장이지만, 현대에 와서도 전혀 퇴색하지 않고 군사 외 여러 분야에서도 인용, 해석되고 있다. 그 사례로 앞의 서머즈 뿐만 아니라 황성철의 논문¹³⁾ “북한군의 한국전쟁수행 전략에 관한 연구: 클라우제비츠의 마찰이론을 중심으로”와 이라크전에서의 미국의 전쟁수행 및 안정화, 그리고 통일독일의 군사통합과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군사분쟁 간 안정화와 평화 시 군사통합 간 안정화도 정치의 연속이고, 수행 간 정부와 국민의 관계, 그리고 군대 간에 상호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마찰과 균형을 전쟁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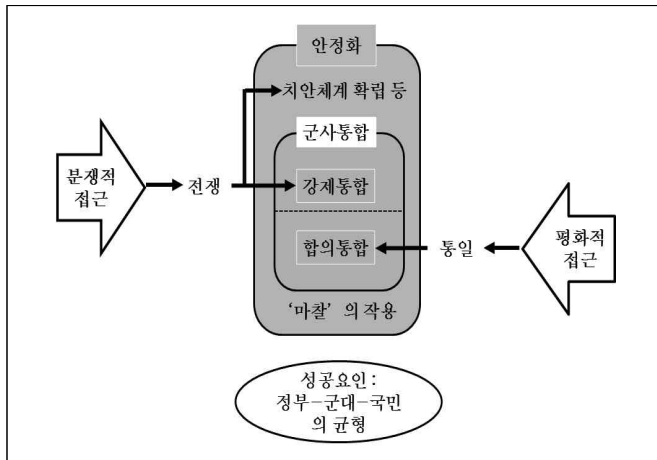
12) 민평식 역, 해리 서머즈 저, 『미국의 월남전 전략(On Strategy: The Vietnam War in Context)』, 서울: 병학사, 1983.

13) 황성철, “북한군의 한국전쟁수행 전략에 관한 연구 : 클라우제비츠의 마찰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만 아니라 평화 시, 또는 제 영역에서도 적용, 해석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정부-군대-국민의 삼위일체를 안정화의 성공요인이라 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안정화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의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안정화는 단지 군사작전에 한정하지 않고, 군사분쟁 및 평화의 모든 상황에서 제 영역과 수단에서의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궁극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표현하면, 국가적 불안정한 상황을 안정된 상황으로 가기 위한 제반 과정이다. 둘째, 군사분쟁적 접근이든 평화적 접근이든 간에 국가 간 군사통합 과정도 안정화 과정이 필요하다. 분쟁 시에는 강제통합, 평화 시에는 합의통합이다. 셋째,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론(정부-군대-국민 상호간 마찰의 최소화, 균형유지) 논리를 분쟁, 평화 간 안정화에도 적용시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논리를 아래 <그림 1>에서와 같이 분석의 틀을 적용하여 이라크전쟁 간 안정화와 동서독 통일과정에서의 군사통합 간 안정화 사례를 안정화 성공요인 측면에서 분석, 함의를 찾고, 한반도에서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분석의 틀



Ⅲ. 군사분쟁 간 안정화 사례: 이라크전쟁

1. 전쟁 및 안정화의 경과

9·11테러를 계기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전략에 의해 대량살상무기 확산국 및 불량국과 테러리스트의 결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주력하였고, 이는 이라크전으로 비화되었다. 2003년 시작된 이라크전은 미국군을 포함한 연합군이 이라크를 상대로 단기간에 종결지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최종적으로 2010년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 과정을 성격적으로 구분하면 전쟁 준비단계, 전쟁의 결정적 단계, 안정화 단계로 나뉘고 있다.¹⁴⁾

그 첫 단계는 전쟁 준비단계이다. 2002년 1월 미국 부시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북한, 이란, 이라크 등을 ‘악의 축(Axis of Evil)’이라고 적시하면서 불량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하여 미 본토를 위협함을 불용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2003년 3월 19일까지 다국적군을 편성하여 이라크 주변에 전력을 배치하였던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전쟁의 결정적 작전(Decisive Operation) 단계이다. 2003년 3월 20일 연합군은 우세한 전력을 이용하여 이라크를 공격하기 시작하여 4월 15일까지 결정적 작전을 통해 바그다드를 함락시키는 등 주요전투를 종결하는데 단 43일이 소요되었다. 이와 같은 결정적 작전을 통해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사실상 점령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3년 5월 1일 미 부시대통령이 사실상 주요전투 종결을 선언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안정화 단계이다. 연합군과 이라크 정부의 안전을 위협하는 약탈과 살상, 그리고 반란세력들이 바그다드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게릴라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라크 내 치안이 불안정함에 따라 안정화 및 재건이 지속되

14) 합동참모본부, 『이라크전쟁 종합분석』, 서울: 합동참모본부, 2003.; 손석현, 『이라크전쟁과 안정화작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었다. 결국 2010년 8월에 이르러서야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하면서 종료되었다.

앞에서의 두 번째 단계 행위의 핵심은 주로 강제적 물리적 수단에 의한 충돌이었다면, 세 번째 단계는 주요 전투이후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한 대립 및 갈등을 주로 제한된 무력과 비무력 행위에 의해 안정을 추구하는 통합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세 번째 안정화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안정화 추진: 장기간 불안정 지속

(1) 안정화에 대한 미국의 최초 인식: 낙관론 지배

미국은 압도적 군사능력에 기초하여 신속결정 작전으로 군사적 승리에 초점을 두고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핵심시설 위주의 선택적 공격에 따른 지역주민 장악 실패, 민병대와 전투에 있어서 만·군 분리 실패로 주민 피해 발생, 이로 인한 여론의 악화, 대 반란전으로 이어졌다.¹⁵⁾ 결국 이라크가 정치적 안정을 달성하는 데는 약 8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그 만큼 마찰과 갈등으로 불안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2003년 5월 주요전투 이후 이라크 조기 안정화가 실패한 이유를 찾아보면 미국은 이라크전에서 안정화에 명확한 정책과 전략이 부재한 가운데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미 정부의 낙관론이 크게 작용하였고, 병행하여 안정화를 위한 정치·군사적 준비가 사전에 미흡하였던 것이 큰 이유 중 하나였다.

그 사례로 ‘대통령 국가안보지침 제24호’에 의거 2003년 1월 20일 국방부 산하에 창설된 재건 및 인도주의적 지원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라크의 중요한 인프라, 즉 유전, 병원, 도로, 통신 네트워크의 건설과 복구를 관장해야 했다.¹⁶⁾ 하지만 이라크 현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규모와 자원이 크게 제

15) James Dobbins, “America’s Role in Nation-Building: From Germany to IRAQ”(RAND, 2003), pp. 25-26.

16) 손석현, 앞의 책, p. 127.

한되었고, 더욱이 이라크 주요 전투 이후 1개월도 못되어서 5월 13일 그 임무가 연합군 임시행정청으로 전환됨에 따라 성과도 내지 못하고 조기에 임무를 종료하게 되었다. 이는 출발부터 체계적이지 못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다.

(2) 이라크 바트당 및 군대: 조기 해산

이라크 주요전투 이후, 2003년 5월부터 이라크 정책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지게 되었던 연합군 임시행정청은 장기 점령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임시행정청장 브레머 행정관은 5월 16일 바트당 조직 해체와 함께 바트당 구성원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명령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5월 23일 이라크군 조직을 해산하면서 이라크 정치 질서를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건설하려고 하였다.¹⁷⁾

이에 따라 40만 명에 달하는 이라크군이 당장에 실업자가 되면서 아무런 경제적 지원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라크인들에게 가장 존경 받는 조직의 군대에 대한 일방적 해산은 이라크 국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다. 결국 이러한 조치는 이라크 치안을 극도로 불안케 하는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고, 장기간 대규모의 반란으로 이어지게 된다.

다만 임시행정청은 이라크 안정을 위한 초석을 다졌는데, 그 중 이라크 보안군 창설, 신(新) 이라크 육군 창설, 이라크 민방위대 창설, 이라크 경찰인력 강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이라크 정부능력: 회복 지연, 법치 및 부패와의 전쟁

최초 미국은 이라크에서 조기에 전쟁종료 및 철수를 한다는 기본 방침 하에 2003년 4월 결정적 작전에 따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점령한 이후부터 국가조직을 재건하기 위해 이라크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는 이라크 해방군에서 점령군으로 지위를 갑자기 변경하고 군

17) 손석현, 앞의 책,, p. 148.

철수를 지연시켰다.

이에 따라 이라크 정부능력의 회복은 다소 지연되기 시작하였다. 즉 2003년 7월 13일 연합군 임시행정청은 이라크인의 이익을 대표하는 방법으로 '이라크 통치위원회'를 수립하였다.¹⁸⁾ 이후 2004년 6월 28일 이라크 임시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미국은 공식적으로 주권을 이양했고, 점령국에서 이라크 동맹국으로 지위를 변경했다.¹⁹⁾ 2005년 1월 30일 이라크 헌법을 제정할 의회 선거가 실시되면서 임시행정부는 해산, 2005년 5월 3일에 이라크 과도정부가 출범하였다. 그리고 2005년 10월 15일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제정하고, 2005년 12월 15일 이라크 의회 선거를 통해 내각제에 의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²⁰⁾ 하지만 불안정은 지속되었고 최종적으로 안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라크 신정부는 법치 및 부패와의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4) 이라크 치안: 약탈과 종파분쟁 확대

연합군이 바그다드를 신속하게 점령하는 군사작전이 종료된 직후 질서는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었다. 바그다드는 약탈이 횡행했고 미군은 아무런 명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약탈을 방관하고 말았다.²¹⁾ 사담 후세인 정권이 몰락한지 2주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무법상태가 판을 치고 있었다. 바그다드에 산재되어 있는 미군 병력들로 약탈행위를 막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 기간에 조직화된 반대세력의 발호를 저지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지만, 연합군은 전후 작전 준비의 결여로 인해 2003년 중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반란세력의 성장을 방지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

더욱이 2005년 12월 선거로 구성된 이라크 정부는 국민전체의 이익을 반영

18) 이라크통치위원회의 구성은 시아파 대표 13명, 수니파 5명, 쿠르드족 5명, 투르크와 아시리아소수민족 각 1명씩 총 25명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부분적인 정책 결정권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연합군 임시행정청에 대한 자문기구에 불과했다.

19) 손석현, 앞의 책, p. 150.

20) 실제 내각 구성은 2006년 5월 20일에 이루어졌다.

21) 이근욱, 『이라크전쟁』,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11, pp. 112~113.

하기 보다는 다수파인 시아파가 소수파인 수니파를 억압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이에 수니파는 저항했으며, 이라크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아파와 수니파 사이의 종파 분쟁으로 변화했다.²²⁾

이에 따라 이라크전은 주요전투 이후 장기간 안정화작전으로 무게가 쏠리게 되었고, 급기야는 2007년 미군 2만여 명이 증파되어 2010년 8월 미군이 이라크에서 완전 철수할 때까지 대(對) 반란전에 치중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미군의 피해(전사자 4,486명)는 42일 간의 주요전투의 피해(전사자 139명)보다 30배 이상 증가하였다.²³⁾

(5) 재건사업: 민·군 재건팀 적극 참여

초기 이라크의 재건 업무는 대단히 혼란스러웠다. 제대로 계획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미국은 대규모 기반시설 접근방식에서 신생 정부의 능력을 개발해서 이라크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화시켰다. 따라서 전후 이라크 재건의 주안은 이라크 조직들의 능력을 키워주고 이라크 회사들과 직접 계약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2005년 미 의회는 대규모의 이라크 보안군 육성기금을 승인하였다. 이후 3년간 180억 달러가 이라크 경찰과 군, 그들이 사용하는 시설의 구축, 국방부와 내무부를 발전시키는데 제공되었다. 이에 따라 이라크 보안군의 능력은 크게 발전하였고, 병행하여 2007년 여름부터 2008년 내내 폭력사태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최고조의 병력을 유지하여 어렵게 획득한 치안 안정은 보다 더 안전한 재건환경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전기 및 석유 생산량이 전쟁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다.²⁴⁾

그리고 연합군은 미국 주도하 7개소, 영국·이테리, 그리고 한국 주도하 각 1개소의 총 10개소의 지방 재건팀을 구성하여 전개하였다. 지방 재건팀은 군

22) 손석현, 앞의 책, p. 223.

23) “이라크 보디 카운트”, <http://www.iraqbodycount.org>(검색일: 2017. 8. 13).

24) 손석현, 위의 책, pp. 307~309.

부대의 활동에 민간개발 전문가를 투입한 것으로서, 주로 미 국무부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며, 군에서 파견된 예비역과 민간인들, 그리고 미 국제개발기구에 의해 충원된 4~8명의 인력들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2003년 4월 서희와 제마부대에 이어서 2004년 이라크 북부 아르빌(Arbil) 이라크 평화재건 지원단인 자이툰사단을 파병한 것이다.

IV. 군사통합 간 안정화 사례: 독일 통일

1. 독일 통일 및 군사통합의 경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민주주의 체제의 서독과 공산주의 체제의 동독으로 양분되면서 오랜 동안 대립과정을 거치다가, 결국 1990년 10월 3일 40년 만에 서독 중심으로 통일을 달성하게 되었다.²⁵⁾ 최종적으로 독일통일은 국가정책 추진과 동서독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가운데, 군사통합도 큰 물리적 마찰 없이 달성하게 되었다. 참고로 통합이전 동서독의 군사력 현황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독군 현역은 49만 5천여 명, 동독군은 17만 3천여 명으로써 동서독군을 합친 병력의 수는 60만 명을 상회하는 대병력이었고, 더욱이 외국군 80여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양군의 통합뿐만 아니라 외국군 철수를 지원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동서독의 군사통합과정은 서독연방군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진행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에 해당된다.

25) 독일의 통일은 크게 1949년부터의 상호대립단계-1963년부터의 관계회복단계-1969년부터의 화합협력단계-1982년부터의 교류협력증진단계로 구분된다. 김법현, “남북한 군사통합 이후 이념교육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원 박사학위 논문, 2017, p. 32.

〈표 1〉 통합 이전 동서독의 군사력 현황

구 분		서 독	동 독
병 력(명)	현 역	495,000	173,000
	국경수비대	20,000	47,000
	예비군	750,000	330,000
	외국군	401,700	385,000
장 비	전 차(대)	4,227	3,150
	함 정(척)	126	114
	항공기(대)	672	307

*출처 : 하정열,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 방안』, 서울: 팔복원, 1996, pp. 71~72 재구성.

동서독 간 군사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90년 5월부터 적정 병력규모와 동독군의 전역차 처우문제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면서 군사통합은 4단계에 의해서 추진되었다.²⁶⁾ 먼저, 1단계는(1990. 7~1990. 8월 말) 군사통합 여건을 조성하였다. 서독은 승전국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 군사적 신뢰를 조성하면서 구소련과 철수문제를 합의하고, 동독 국방부에는 연락단(250여명 규모)을 운영하여 군사통합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2단계는(1990. 8월 말~1990. 10. 3) 합의에 의한 군사통합 준비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서독연방군은 동부사령부²⁷⁾에 육군 실무관계요원(850명 규모)을 운용하고 군사통합에 장애가 되는 동독인민군 주요 직위자와 정치군인을 전역조치하고 국경수비대를 해체하였다.

3단계는(1990년 10월 3일~1991년 3월 31일) 통일연방군은 동독군 지휘권 인수 및 개편을 단행하였다. 동독인민군을 해체하면서 서독연방군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인원에 대해서 동독군 대대급 부대에 교육지원팀을 운용하여 조기동

26) 박영환, 『남북 군사통합 시 독일모델 적용 가능성 연구』,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4, P. 47.

27) 동부사령부는 독일 연방군이 동부지역에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동독군 통합입무를 실시하고 1991년 7월에 해체되었다. 정용길, 『남·북한 통일 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정치·경제·사회·군사분야』, 『전략논총』, 1995, pp. 141~142.

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4단계는(1991. 4. 1~) 동독인민군 해체 완료와 함께 독일연방군 완성을 이루었다. 또한 통일독일은 병력규모를 37만 명으로 축소하면서 동독군 편입과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동서독 병력은 최종 통합 이후 2009년 말에 25만여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2019년에는 18만 5천여 명 수준으로 추가 감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성공 모습과 달리 내부적으로 동독인민군은 서독 연방군 체제와 문화차이에서 오는 심리적 갈등과 마찰을 극복해야만 했다.

2. 안정화 추진: 조기에 안정 유지

(1) 동독인민군: 즉각 해체를 통한 대통합 추진

통일 이전 당시 동독인민군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대규모 시위와 탈출의 증가, 인민군을 민간경제 부분에 과도하게 투입하는데 따른 불만 고조, 고도의 전투준비태세 강요 등으로 사기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었다. 또한 서독연방군으로 흡수 통합하는 상황에서 동독군의 정체성 혼란으로 인민군의 불안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

이처럼 동독인민군은 통일 논의 과정부터 내부적 혼란으로 이미 와해되어 무력화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논의 과정에서 동독 에펠만(Rainer Eppelmann) 군축-국방장관은 1국가 2군대론을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서독 국방장관 스톨텐버그(Gerhard Stoltenberg)는 동독인민군을 통일연방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동독인민군 96%가 공산당 당적을 가지고 있고, 비밀주의와 교주주의 특성을 지녔으며, 2개의 군대가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²⁸⁾ 따라서 동독인민군은 1990년 10월 3일부로 즉각 해체되었다.

한편, 서독연방군은 1990년 8월에 동독인민군 해체와 함께 서독 연방군으로 편입 지침을 작성하고 우선적으로 대령 및 장군과 주요직위자 및 정치군인을

28) 이승철, “통일 독일의 군 통합 전략 연구.” 『군사연구』 제 136집, 2013, p. 68.

전역시키고, 국경수비대와 슈타시(비밀 경찰요원)를 해체시켜 군사통합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였다. 결국 통일연방군은 대통합으로 안정을 유지하게 되었다.²⁹⁾

(2) 동독군 복무기회: 조건부 기한제 편입제도 적용

동서독 정부가 체결한 통일조약 중에서 동독인민군이 개별 신청을 통해 서독연방군으로 편입하여 2년간 조건부로 근무할 수 있는 조건부 기한제 편입제도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연방군은 동독인민군 중에서 편입이 가능한 5만 여명 대상자 중에서 먼저 2만 5천명에 대한 편입을 승인하였다. 이 중에서 적합심사위원회 검증을 걸쳐 1차적으로 1만 8천명(장교 6,000명 부사관 11,200명, 병 800명)만 2년제 조건부 기한제로 편입하여 복무하게 되었다. 그 후에 2년간 조건부 입시 기간이 지난 후에 개인적인 능력과 통일 연방군으로 정치사상 이념 등을 검증하여 3년 기한제 근무제와 직업군인으로 편입하였다.³⁰⁾

이런 절차를 통해 동독인민군이 서독 연방군에 최종 편입한 인원은 장교 3,200명을 포함한 1만 800명 수준이었다. 이는 동독인민군들에게 기회를 부여하여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군사통합에 순응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여 안정 유지에 기여하였다.

(3) 내적갈등 극복: 단계적 이념교육 시행

서독 연방군과 동독인민군은 체제분단으로 인한 상이한 정치체제와 정치교육을 통해 서로 다른 가치관과 이념을 가진 군대를 육성해 왔다. 따라서 동서독의 내면에는 깊은 이념갈등이 대립하고 존재하였다. 그대표적인 예로 동서독 통일이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잘난 베씨(Wessis)와 못난 오씨(Ossis)를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처럼 통일연방군은 먼저 체제분단으로 오랜 기간 동

29) 김법현, 앞의 논문, p. 102.

30) 이승철, 앞의 논문, p. 74.

안 대립으로 이념갈등을 해소하고 내적통합 달성이 최우선이었다. 이를 위해 이념교육은 3단계로 진행되었다.³¹⁾

첫째로, 체제인식과 의식전환 교육을 선행하였다. 서독연방군은 1990년 7월부터 정신교육센터³²⁾와 서독연방군 장교학교를 이용하여 동독인민군 초급간부와 장교들에게 통일연방군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전환을 위한 이념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공산주의를 조기에 청산하고 통일연방군으로 가치관을 확립시켰다.

둘째로, 편입인원에 대한 적응 및 동화교육을 시행하였다. 서독연방군으로 편입된 동독인민군이 이념갈등을 극복하고 연방군으로 동화되어 임무수행 능력을 갖추는데 두었다. 이를 위해 1990년 10월 3일부터 동독군 지역에서 3주간의 특별교육 기간을 설정하여 동화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위관급 장교에게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내면화시키는 ‘재복입은 시민’과 내적지휘(인간중심지휘)³³⁾ 특별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셋째로, 재교육을 반복 시행하였다. 편입인원에 대한 안정 및 지속적인 재교육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적응과 내적갈등 극복에 중점을 두었다. 동독인민군 간부 소집교육은 1·2차로 나누어 임무수행에 필요한 부대 실습, 정신교육, 지휘통솔을 교육하였다.³⁴⁾ 이와 같은 이념교육은 상호 간에 동질성을 회복하여 민족공동체정신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

(4) 빈부격차 해소: 경제적 사후 안정성 보장

독일의 통일은 동독의 경제적 몰락으로 환경이 피폐해지면서 국가 체제가 무너지고 주민들은 희망을 찾아 약 4백만 명의 주민이 동독을 탈출하고 시위

31) 김법현, 앞의 논문, pp. 37~44; 김법현, 박사학위 논문, 2017, p. 62.

32) 1956년에 창설된 서독의 정신교육센터는 정신교육과 지휘통솔을 담당하는 연구기관 및 군사학교이다. Zentrum Innere Führung Menschenführung, Politische Bildung und Recht(2005); 김법현, 앞의 논문, p. 103.

33) 독일의 독특한 정훈교육으로 장병도 민주시민으로서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이념교육 프로그램이다. 이승철, 앞의 논문, p. 78.

34) 김법현, 박사학위논문, 위의 논문, p. 41.

와 함께 서독의 풍요로운 생활을 갈망하면서 주민이 직접 선택한 통일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통일이 논의되면서 동독주민과 인민군의 최대 관심사항은 경제적 문제이었다. 이에 따라 서독 정부도 동독을 같은 눈높이의 대등한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서독 정부는 경제적으로 가장 관심이 되는 동서독의 화폐 교환 비율을 1:1 비율로 높이 책정하여 동독주민과 인민군이 조기에 안정을 유지하면서 서독지역으로 집중 이동하는 현상을 차단하였다. 또한 통일연방군으로 편입하는 동독인민군에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었고, 전역한 인원에 대해서는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만 5천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였다.³⁵⁾ 그리고 전역하는 동독인민군에게는 부양계획을 수립하여 복무연수와 연령에 따라 연금과 퇴직수당을 지급하여 동독주민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동독의 공권력을 유지하는 공무원과 인민군은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통일조약에 따라 서독의 64% 수준에 달하는 봉급을 지급하였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서 2007년에는 100%에 도달하였다.³⁶⁾ 독일 정부는 동독주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면서 서독 정부와 연방군에 협조하고 순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동독인민군을 해체하는 가운데도 큰 불만과 소요 없이 성공적인 군사통합을 달성하고 안정을 유지하였다.

(5) 군·민 신뢰감: 친군화 활동 강화

통일 이전까지 동독주민은 동독인민군을 비밀주의, 권위주의자로 인식하고 구조련의 억압 속에 위협의 존재로 부정적이었다. 통일연방군은 새로운 통합군으로 이미지를 개선하면서 절대적인 권위와 권력을 배제하고 국민과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새로운 군대 모습을 보여 주고자 노력하면서 우호적 반응을

35) 김법현, 박사학위논문, 앞의 논문, pp. 54~55.

36) 라이너 에펠만 전 군축·국방장관이 2016년 “미래 한반도 안보환경변화에 따른 한국군 발전방향” 세미나에 참가하여 기조연설을 실시하였다. 2016년 12월 1일, 육군교육사령부.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통일연방군은 동독인민군의 편입인원과 서독연방군을 혼합하여 편성하고 배치하였다. 통일이후 1993년 까지도 동독인민군이 서독에 배치되는 인원은 약 230명 수준으로 저조하였고, 서독연방군이 동독 지역에 배치도 꺼려하고 부정적 인식이 지대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재교육과 인간적 관계를 유지하고 동독지역 근무환경을 조성하면서 1996년에도 6,000명이 넘는 인원이 전환 배치되고 상호 불신감을 해소하였다.

통일연방군은 동독지역의 무기 폐기와 낙후된 병영개선을 위해 매년 10억DM(한화 약 7,100억원) 규모를 투자하여 약 100억 DM(한화 7조 1천억)을 투자하였다. 또한 전역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연방군에 신뢰감과 안정성을 인식시켰다.³⁷⁾ 지방 자치단체와 지역단체 행사에 적극 협력하면서 신뢰 받는 새로운 군대로 발전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군·민 통합과 체제전환 차원에서 시행하는 이념교육은 국방부에서는 ‘정신교육센터’에서 실시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연방정치본부’에서 체계적인 정치사상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동독주민과 인민군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의 이질성에서 오는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V. 비교 평가 및 함의

1. 비교 평가

(1) 안정화 달성여부 및 영향요인

우선, 앞의 III장과 IV장에서의 이라크전 및 통일독일의 안정화 달성여부를 정치·사회·경제·군사 측면에서 종합 비교평가하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하

37) 이승철, 앞의 논문, p. 86.

였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정치적 안정 측면으로, 이라크전에서는 장기간 불안정하였는데 이는 미 정부의 안정화 준비 미흡, 바트당의 조기 해산, 이라크 정부능력의 회복 지연, 심한 종파갈등, 그리고 장기간 법치부패와의 전쟁이 주요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다만 중립적 선거에 의한 신정부 출범 노력이 이라크 안정에 기여하였다. 반면에 통일독일의 군사통합과정에서 조기 안정은 동서독 간 상이한 이념적 체제임에도 불구하고도 서독 정부의 철저한 준비와 동서독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자유민주주의 이념교육 추진, 그리고 슈타시(비밀경찰)와 같은 무장 세력의 조기 제거가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두 번째 사회적 안정으로, 이라크전에서는 장기간 불안정하였는데, 이는 이라크인 문화에 대한 미국의 인식 부족과 초기 약탈 등 치안질서의 문란, 무기 통제 회수 및 민간인 통제 지침 부재가 크게 작용하였다. 다만 미국에 의한 이라크군 및 경찰조직의 재정비는 후반기 안정에 기여하였다. 반면 통일독일의 군사통합과정에서는 동독(오씨) 및 서독(베씨)에 의한 갈등과 문화적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사회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는 연방정치본부 주관 이념교육과 동서독의 문화를 이해시키고, 제복입은 시민과 내적지휘 교육, 선택과 집중의 사회복지정책, 그리고 무기 및 탄약 조기 회수가 크게 작용하였다.

세 번째로 경제적 안정으로, 이라크전에서는 이라크군 60만 명의 조기 실직과 실직자에 대한 보상을 미실시하고, 기반시설 복구 지연 등이 주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및 우방국의 민간중심 지방 재건활동이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통일독일의 경우에는 동서독 간 빈부의 격차로 인한 불안이 있었지만 동독군에 대한 사후 안정성 보장과 화폐교환 비율 1:1 책정, 전역장병 일자리 창출, 전역수당과 연금 및 퇴직금 지급 등으로 조기 안정에 기여하였다.

네 번째 군사적으로, 이라크전에서는 초기 물리적 승리에 치중하여 이라크 군대를 조기에 해산하였다. 또한 안정화를 위한 조직체계가 미비하고, 장기간

대반란전 시행과 인명피해 증가 등으로 이에 따른 미 여론의 악화가 군사적 불안정으로 이어졌으나, 2007년 미국군 병력증파는 안정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통일독일의 경우에는 서독 정부에 의한 동독인민군 즉각 해체, 조건적 기한부 편입제도 시행, 지속적인 재교육, 병력 혼합편성 및 배치, 그리고 친군화 활동으로 신뢰감 조성 등을 통해 조기 안정에 기여하였다. 이를 도표화하면 아래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이라크전과 독일 군사통합 간 안정화 달성 여부 및 영향요인 비교(예시)

▲ 마찰요인, ○ 균형요인

구 분	이라크전 시 안정화	독일 군사통합 간 안정화
정치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정부의 안정화 준비 미흡 ▲ 바트당의 조기 해산 및 저항 ▲ 이라크 정부능력의 회복 지연 ▲ 종파간 극심한 갈등 ▲ 장기간 법치, 부패와의 전쟁 ○ 중립적 선거에 의한 정부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독 체제 간 갈등 ○ 최초 철저한 준비 ○ 서독 정부능력의 유지 ○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 자유민주주의 이념교육 ○ 슈타시 등 무장세력 제거
사회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약탈 등 치안질서 문란 ▲ 이라크인의 문화 인식 부족 ▲ 무기통제 회수 및 민간인 통제 지침 부재 ○ 이라크군/경찰조직 재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오씨), 서독(베씨) 갈등 ○ 연방정치본부 주관 이념교육 ○ 제복입은 시민 및 내적지휘교육 ○ 선택과 집중의 사회복지정책 ○ 무기/탄약 조기 회수
경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라크군 60만 명 조기 실직 ▲ 실직자에 대한 보상 미실시 ▲ 경제시설(석유 등) 재건 지연 ▲ 기반시설 복구 지연 ○ 민간중심 지역/지방 재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수준 심한 격차 ○ 전역자 사후 안정성 보장 ○ 화폐교환 비율 1:1 책정 ○ 전역장병 일자리 창출 ○ 전역수당, 연금/퇴직금 지급
군사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물리적 승리에 치중 ▲ 이라크군 조기 해산, 불만 ▲ 안정화 위한 미군조직체계 미비 ▲ 장기간 대반란전 시행 ▲ 인명피해 증가, 미 여론 악화 ○ 2007년 병력증파(2만여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의 1국가 2군대론 주장 ○ 동독인민군 즉각 해체 ○ 조건적 기한부 편입제도 시행 ○ 지속적인 재교육 ○ 병력 혼합편성 및 배치 ○ 친군화 활동으로 신뢰감 조성

*출처 : 필자가 이라크전과 독일 군사통합 사례를 기초로 종합 정리한 결과임.

(2) ‘정부-군대-국민’의 마찰과 균형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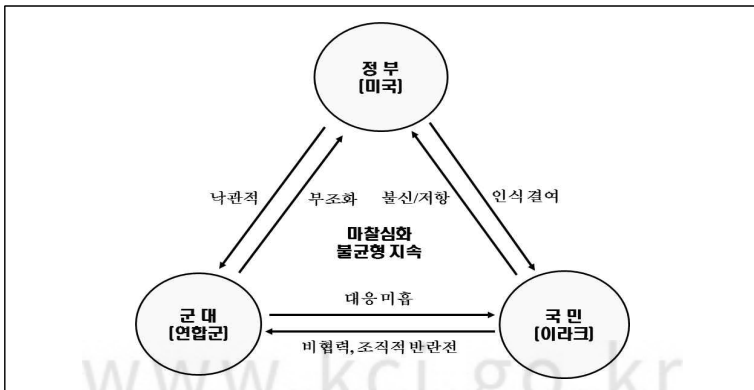
이를 클라우제비츠의 ‘정부-군대-국민’의 마찰과 균형관점에서 종합하면, 이라크의 안정화 간에는 전반적으로 균형보다는 마찰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장기간 불안정으로 지속하였고, 통일독일 군사통합 간에는 전반적으로 마찰보다는 균형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조기에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안정화의 성공요인의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하면, 이라크전에서의 안정화는 아래 <그림 2>에서와 같은 특징이 도출된다.

첫째, 정부가 군대 및 국민의 관계에서 미국 정부의 지나친 낙관적인 시각과 이라크 국민에 대한 문화 인식의 결여가 작용하였다.

둘째, 군대가 정부 및 국민의 관계에서는 미군이 정부 유관기관과의 협조 미흡에 따른 부조화와 이라크 안정화작전을 위한 조직과 병력 및 훈련이 부족함에 따른 대응이 미흡하였다

셋째, 국민이 정부 및 군대와와의 관계에서 미 정부에 대한 이라크 국민의 불신감과 함께 저항, 연합군의 작전에 비협력적이면서도 조직적인 반란전으로 대응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라크전에서 안정화는 ‘정부-군대-국민’간에 마찰이 심화되고 갈등 속에 불균형이 지속되었다.

<그림 2> 이라크전 안정화의 삼위일체 분석(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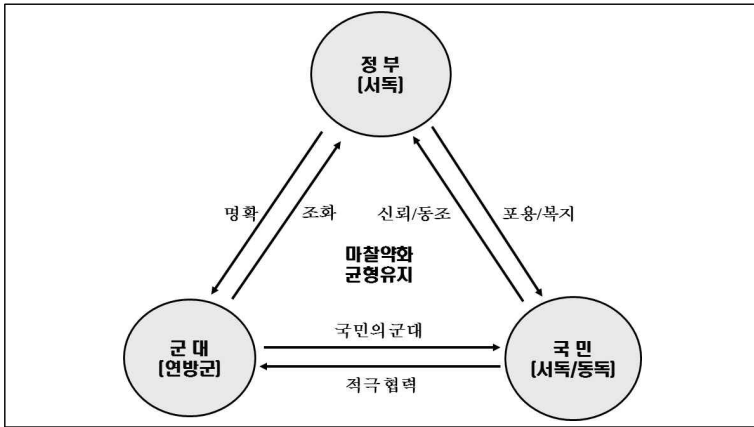
반면 통일독일의 군사통합 간 안정화는 아래 <그림 3>에서와 같은 특징이 도출된다. 첫째, 정부가 군대 및 국민의 관계에서 통일과 통합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동독군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 및 복지정책으로 마찰을 최소화하였다.

둘째, 군대가 정부 및 국민의 관계에서 서독연방군이 친군활동으로 동독주민에게 신뢰성을 회복하고 정부의 통합방향에 우군세력으로 조화를 이루었다.

셋째, 국민이 정부와 군대의 관계에서 서독 정부정책에 신뢰와 동조하고 군대에 적극적인 협력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통일독일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체제분단의 이념적 갈등 속에서도 ‘정부-군대-국민’ 간에 마찰과 갈등을 완화하고 균형을 유지하여 성공적인 군사통합과 안정화를 달성하였다.

<그림 3> 독일 군사통합 간 안정화의 삼위일체 분석(예시)



2. 함 의

이제까지 군사분쟁 및 평화 시 군사통합 간 안정화에 관하여 이라크전쟁과 독일통일의 군사통합 사례를 통해 마찰과 균형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다음

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로, 군사분쟁, 또는 평화 시 군사통합과정 모두 안정화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최근에 부각된 군사분쟁에서의 ‘안정화’의 개념이 평화 시 군사통합에도 확장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군사분쟁은 물리적 파괴를 수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화는 주로 치안체계 확립과 민생안전, 재건, 정부통치지원의 소요가 증대되고 강제적 군사통합도 시행해야 하므로 그 범주가 매우 넓고, 마찰과 대응이 강한 편이다.

둘째로, 안정화는 단지 군사적 수준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정치·사회·경제·군사의 제 영역의 총합적 접근이라 하겠다. 이는 앞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에서는 국가적 관심이 크게 요구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연구와 발전이 필요하다.

셋째로, 안정화는 ‘정부-군대-국민’ 간에 상호 균형이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배가한다. 앞의 사례에서 이라크전쟁에서의 장기간 불안정 원인은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였겠지만, 그 중 정부와 군대 그리고 국민(이라크) 간 균형보다는 마찰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통일독일도 체제분단에서 오는 이념갈등과 경제적 빈부의 격차 속에서도 군사통합간 조기 안정화는 정부와 군대 그리고 국민(동서독)의 마찰보다는 균형이 유지되었다. 이는 남북한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Ⅶ. 결 론: 한국의 적용가능성

안정화는 미래 남북한이 통일과정에서 반드시 걸쳐야 할 필수적인 과업이다. 특히 우리와 통일을 이루어야 할 북한의 환경은 이라크나 독일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라크전과 통일독일 군사통합 과정에서의 안정화에 관한 마찰 요인과 균형요인을 참고로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경우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마찰요인이 예상된다.

먼저, 남북한은 자유민주주의 대 사회주의, 시장경제 대 중앙집권적 계획경

제라는 상이한 구조 속에서 70여 년간 분단되어 왔다. 따라서 심한 이념 및 구조상 갈등과 마찰이 예상된다. 더구나, 북한은 선군사상에 의해 김정은 중심의 군부가 무력을 장악하고 사회를 심하게 통제하고 있다.³⁸⁾ 이러한 통제된 환경은 군사통합 간 남북한 사회적 안정화에 심한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의 경제력은 2016년 기준, 남한이 북한에 비해 국민총소득(GNI)이 45배가 되고, 1인당 국민소득(GNI)은 북한에 비해 22배가 넘는다.³⁹⁾ 이러한 경제력 차이에서 오는 경제적 불균형과 북한주민의 기대감에 대한 상실은 사회적 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북한군은 약 120만 명, 한국군은 약 60만 명으로써 총 180만 명의 대규모의 병력이 대치하고 있고, 방대한 군사적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⁴⁰⁾ 특히 북한은 대량살상무기가 산재되어 있어 조기에 통제와 차단이 어려우면 안정화는 장기화 되면서 사회적 혼란과 피해가 증가될 것이다. 특히, 군사통합 과정에서 독일과 같이 북한군을 즉각 해체하거나 육구가 미 충족 시에는 큰 무력투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마찰요인을 식별, 조기에 제거하여 균형적 안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적 안정화의 통합모델 발전이 필요하다. 한반도에서는 분쟁 및 평화 간 안정화가 모두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비가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국가적 차원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적 통합 안정화 모델의 개발 및 적용은 기본적으로 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각 전문가들에 의한 치밀하고도 충분한 안정화 추진방안이 사전에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국가전략인 셈이다.

셋째, 국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정치적으로

38)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북한 이해』, 2016, pp. 42~26.

39) 한국은행, “남북한의 주요 경제지표,” <http://ecos.bok.or.kr/>(검색일: 2017. 09. 02).

40) 국방부, 『2016 국방백서』, 2016, p. 236.

는 체제 통합에 따른 이념갈등 해소가 핵심으로써 이를 위해 군·관·민 통합교육(군: 정신전력원, 행정기관: 통일 교육원 등), 정치간부 및 공산당 추종세력 제거, 언론매체 활용 대 국민 홍보활동(심리적 안정유지, 유언비어 통제 등) 강화, 그리고 간부 소집교육을 통한 의식전환 교육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는 생계 사후보장이 가장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전역간부 연금 및 퇴직 수당 지급과 전역장병 일자리 지원, 공무원 및 사회기반 요원의 안정성 보장, 그리고 적정한 화폐 교환비율 책정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는 질서 및 안정유지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무기 및 탄약 통제 및 폐기 처리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조 및 제 역할 활동, 사회기반 시설 우선 복구(전기, 급수, 생활필수품 등), 약탈 방지 및 교도소 통제 등이 필요하다.

군사적으로는 신뢰감 구축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북한군 적정인원 유지 및 해체, 편입제도 적용, 병력 혼합편성 및 배치, 적극적인 대민 관계 및 지원 활동이 필요하다.

더 나가서 남북한은 한민족공동체정신에 의한 화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은 민족적으로 단일민족, 지정학적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강대국에 쌓여 있다. 따라서 민족 간에 또 다른 대립을 제거할 수 있는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정화 수행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소요에 대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사전 철저한 준비와 전문 인력 양성, 북한 환경과 문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 기법 창출, 무력에 의한 반란세력은 조기에 분리 및 제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핵, 미사일 등) 조기에 통제 및 제거,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정상화, 친군활동에 의한 일체감 조성, 북한군의 불만 해소, 북한 주민의 기대감 성취, 전역인원에 대한 사후 보장,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감 조성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결론적으로 안정화는 용어의 적용에 있어서 분야별로 달리 해석될 수 있고, 수행 여건과 방법에 있어서는 상이할 수 있겠지만, 그 본질적 의미는 대동소이하며, 대비하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연속된 개념으로 인식할 필요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남북한으로 분단된 우리의 여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국가 간 군사적 충돌, 또는 평화적 해결과정에서 파괴적 승리 못지않게 비파괴적 안정화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고, 또한 군사분쟁을 통해 승리를 하더라도 안정화와, 국가 간 통일에서의 군사통합 간에도 안정화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향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또는 비충돌이건 간에 안정화의 과정은 필수적이고, 이에 대비한 우리의 정부-군대-국민이 균형유지와 합심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향후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참고문헌

<논문>

- 권양주, “남북한 합의 통일 시 군사통합 적정시기 및 절차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제 24권 제2호, 2003.
- 김법현, “분단국 군사통합과정에서의 이념갈등 극복: 독일 사례분석과 한반도 적응방향”, 『한국 군사학 논집』 제73집 1권, 2017.
- _____, “남·북한 군사통합 이후 이념교육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 이만중, “분단국의 통일과 군사통합에 대한 소고,” 『국방논집』 제30호, 1995.
- 이승철, “통일 독일의 군 통합 전략 연구,” 『군사연구』 제136집, 2013.
- 정용길, “남·북한 통일 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정치·경제·사회·군사분야” 『전략논총』, 1995.
- 황성철, “북한군의 한국전쟁수행 전략에 관한 연구 : 클라우제비츠의 마찰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저서>

- 국방부, 『2016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6.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라크 재건의 뼈아픈 교훈』,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9.
- 민평식 역, 해리 서머스 저, 『미국의 월남전 전략(On Strategy: The Vietnam War in Context)』, 서울: 병학사, 1983.
- 박근열, 『통일 한국군의 문화통합과 가치교육』,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1.
- 박영환, 『남북 군사통합 시 독일모델 적용 가능성 연구』,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4.
- 박종철 등 7명,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손석현, 『이라크전쟁과 안정화작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 양현모, 『독일 통합의 경험이 남·북한 체제 통합에 주는 교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1998.
- 이근육, 『이라크전쟁』, 과주: 한울 아카데미, 2011.
- 이라크평화재건사단 보고서, 『이라크전쟁을 통해 본 향후 한반도 민군작전수행방안』,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6.
- 이상우, 『통합 시나리오: 2000년 경제통합, 2010년 정치통합, 2020년 통합공화국 수립』, 서울: 동아일보사, 1993.
- 이중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과주: 한울아카데미, 1998.
-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회장 15-3-1 『안정화작전』, 대전: 육군교육사, 2015.
- 육군대학, JP 3-0 『안정화작전(Stability Operation)』, 대전: 육군대학, 2009.
- 육군본부, 『군사용어사전』, 계룡: 국군 인쇄창, 2012.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북한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16.

하정열,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 방안』, 서울: 팔복원, 1996.

합동참모본부, 『이라크전쟁 종합분석』, 서울: 합참, 2014.

_____, 『합동안정화작전』, 서울: 합참, 2016.

James Dobbins, “America’s Role in Nation-Building: From Germany to IRAQ,” RAND, 2003.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FM 3-07 *Stability Operation*, 2008.

국어사전, <http://dic.daum.net/search.do?>(검색일: 2017. 8. 13).

“이라크 보디 카운트”, <http://www.iraqbodycount.org>(검색일: 2017. 8. 13).

Abstract

A Study on Stabilization of Military Conflict and Integration : Focusing on Clausewitz Trinitarianism

Kim, Beob-Heon(Chosun University)

The importance of stabilization has been greatly increased until the final stabilization and peace after the inter-state military disputes in modern times. Stabilization is ultimately an important task to resolve friction and balance in pursuit of national stability and people's happiness.

However, in Korea, there is a tendency to look at stabiliz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consensus that the military operation level in military conflicts is merely a mere conflict, and to overlook the necessity of efforts in the field of peace or wartime to pursue better stability and peace by creating a new environment.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the concept of stabilization and attempts to reestablish the concept of stabilization by broadly interpreting it in terms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military aspects of military integration

To this end, w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friction and balance between the government, the army and the people' in the process of stabilization, and applied it to the case of military integration in Iraq and Germany. In order to apply stabilization to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we have focused on what kind of preparation we should prepare

As a result, it can be confirmed that stabilization can be applied both in military conflict and military integration, especially in peace, in the area of the military, and minimizes friction between the propulsion systems and stabilizes balance.

Key words: Stabilization, Military conflict, Military integration, Conflict and balance, Success factors for stabilization

투고일 : 2017년 10월 30일 • 심사일 : 2017년 12월 14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12월 22일

